

Glovision



MISSION CENTER

2019년 두번째 소식



글로비전 국제학교
SOT Asia Christian
Educators' Conven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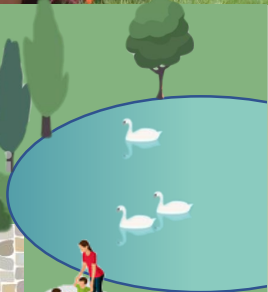
글로비전 국제유치원
한글반 개원 준비



비전하우스
김지연 선교사
입주



방라몽 새빛교회
세례식, 한인예배,
특별새벽기도, 고난주간



다니엘학사
좌충우돌 남학생들,
방학 끝 개학준비,
새 친구 디아



호산나 대안학교
한국어, 성경,
음악, 영어수업





New Light Church of Banglamung



방라뭉 새빛교회의 새신자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난 3월 10일, 글로비전미션센터 내에 살고 있는 떠이 할머니와 10명의 캄보디아 일꾼들, 그리고 땀(다니엘학사)의 어머니가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식은 쉰톤 목사님과 최정철 목사님의 집례로 진행되었습니다. 센터 안에서 함께 동거동락하며 지내던 성도들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구주로 인정하게 되니 감사와 은혜가 넘쳤습니다. 앞으로 방라뭉 새빛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서로를 든든히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특히 땀의 어머니는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난한 마을에서 홀로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땀의 어머니를 통해 한 마을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방라뭉 새빛교회 한인예배와 특별새벽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방라뭉 새빛교회의 한인예배가 3월 31일 주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이반석 선교사가 찬양을 인도하고, 이규식 선교사와 최정철 목사가 번갈아 말씀을 전합니다. 한인예배를 시작하게 된 취지는 글로비전미션센터의 한국인 사역자들이 모국어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과 혼이 온전히 충전이 되어 충실히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하게도 사역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면서 공동체에 활기와 친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글로비전미션센터의 한국인 사역자들이 한인예배 성도의 전부이지만, 하나님께서 한인예배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4월 30일부터는 방라뭉 새빛교회 특별새벽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글로비전국제학교 공사가 부족한 재정으로 진전이 더디고, 글로비전국제유치원의 개원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글로비전미션센터의 사역을 위해 사역자와 현지인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많은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더욱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난 주간 정사예배를 드렸습니다

4월 19일, 고난주간 금요일에 글로비전미션센터의 사역자들과 방라뭉 새빛교회의 성도들이 한 데 모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들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으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이규식 선교사와 최영미 선교사 부부가 일꾼들과 다니엘학사 아이들의 발을 씻겨줄 때 자리에 함께 했던 이들이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후 설교를 듣고 영상을 보며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성찬식을 하고 십자가에 마음을 담은 촛불을 붙이면서 예배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송끄란이라는 태국 최대의 명절 기간 중에 글로비전미션센터의 모든 구성원이 경건하게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준비하고 은혜롭게 인도해준 앓 전도사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Daniel House



다니엘 학사의 여섯 남자 아이들이 죄충우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인근 고아원에서 다니엘 학사로 새롭게 들어온 6명의 혈기왕성한 남자 아이들이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호산나 대안학교 정문 유리창을 깨뜨리기도 하고, 자신들의 방에 설치해 두었던 선풍기를 부수기도 하고, 허락 없이 수영장에 물을 받아서 놀려다가 걸려서 혼나기도 하고, 미니 동물원에 있는 염소에게 돌을 던지기도 하고, 주일학교 여자 아이들을 괴롭히기도 하는 등 이 아이들을 관리하는 싸이 선생과 앓 전도사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 정도로 말썽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그 중 제일 심각했던 문제는 도둑질이었습니다. 남자 아이들은 글로비전미션센터 대문에서 지내고 있는 빠띠이 할머니의 방에 들어가 여러 차례 우유와 돈을 훔쳤습니다. 제일 나이가 많은 형인 띠이가 먼저 나서서 도둑질을 하니, 동생들도 따라한 것입니다. 띠이는 빠띠이 할머니의 돈 500밧(약 18,000원)을 훔쳤다가 걸려서 혼이 나서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일학교 헌금 1300밧(약 4만 8천원)을 훔쳐서 숨겨두고 다른 사람들을 범인으로 몰며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이 나서 학사에서 쫓겨날 뻔 했습니다. 띠이는 물건을 훔친 잘못으로, 나머지 아이들은 알면서도 묵인한 잘못으로 로마서를 필사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띠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이규식, 최영미 선교사 부부의 사택으로 창문을 통해 네 차례 몰래 들어가 셀카를 찍거나 TV를 보고, 돈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돈을 훔칠 당시에는 현장에서 발각이 되어 그 즉시 띠이가 센터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후 띠이는 3일간 밖에서 노숙을 하며 센터 주변을 배회하다가 새벽기도 시간에 교회 담벼락 뒤에서 발견이 되어 센터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글로비전미션센터의 사역자들은 띠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띠이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잘못에 대한 처벌은 띠이가 빠띠이 할머니와 같이 살며 중풍으로 누워있는 할머니의 남편을 돌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일꾼들을 도와 글로비전국제학교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도록 했고, 품삯의 절반은 최영미 선교사가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띠이가 학사의 남자 아이들에게 겁을 주지 않도록 띠이와 아이들의 거리를 멀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띠이는 많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띠이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니엘 학사 아이들이 방학을 알차게 보냈습니다.

학사 아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방학을 알차게 보냈습니다. 오전에는 앓 전도사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호산나 대안학교에서 한국어와 영어, 음악과 성경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휴식을 취하거나 축구를 하는 등 자유롭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글로비전미션센터의 사역자들은 방학 동안 다니엘 학사의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서로 더 알아가고 정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학사 아이들은 방학 중에 파타야 시장의 여동생 생일파티에 초대받아 맛있는 외식을 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천 하안교회의 후원으로 재미있는 돌고래 쇼도 보고, 출출한 배를 채워줄 간식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개학일(5월)이 다가오면서 학사 아이들은 다 같이 교복을 맞추러 갔습니다. 새로 들어온 아이들 7명의 교복을 맞추느라 적지 않은 재정이 소요되었지만, 아이들의 기뻐하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재정들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니엘 학사의 새로운 식구를 소개합니다.



디아

생년월일 : 2004년 6월 15일 (만 14세)

전입일 : 2019년 4월 18일

장래희망 : 선생님, 요리사

취미 : 독서

성별 : 여

소개내용 : 디아는 부모의 욕심으로 학교도 못 가고 일을 해서 돈을 벌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디아가 안쓰러워 약 1년 전에 디아와 그의 동생 담을 학사로 데려와 살게 했습니다. 하지만 디아의 어머니가 누군가가 디아의 돈 20백(약 750원)을 훔쳐갔다고 칼을 들고 글로비전미션센터의 사람들을 위협해 디아와 동생은 한 달 만에 학사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디아의 어머니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디아를 다시 학사에 받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이 다 교회에 나오고 아버지는 글로비전미션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디아의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밝아지고 있습니다.



Hosanna School



호산나 대안학교의 불빛은 밤 늦도록 꺼지지 않습니다.

호산나 대안학교의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가르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는 매일 한국어 수업, 성경 수업, 음악 수업, 영어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은 새로 합류한 김지연 선교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훌륭한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이 한국어에 흥미 느끼고, 한국어 실력이 날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한국어 찬양을 배워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성경 수업에서는 이반석 선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로마서를 태국어로 필사하며 묵상했습니다. 처음에는 단 10분을 집중하고 앉아있는 것이 힘든 아이들이었지만, 점차 말씀 가운데 젖어 들어 나중에는 45분 동안 집중해서 필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뛰어난 도구인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음악 수업에서는 앓 전도사가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악기를 가르쳐주면서 찬양팀을 구성하여 연습하고 있습니다. 홀로 많은 악기를 가르치는 앓 전도사의 헌신으로 인해 아이들의 연주가 더욱 아름다운 합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영어 수업에서는 최정철 목사가 다양한 소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면서 더 큰 꿈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5월이 되어 학교가 개학을 하면서, 호산나 대안학교의 수업은 방과 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하교 후에 센터로 돌아와서 음악수업을 듣고, 저녁 식사 이후에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방학때보다 길어진 일정에 피곤할 법도 하지만, 그래도 잘 따라와주는 아이들이 대견할 따름입니다. 현재로서는 호산나 대안학교에 출석하는 학생들은 다니엘 학사의 아이들과 캄보디아 일꾼들의 자녀들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Glovision 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



이반석 이기쁨 선교사 부부가 SOT Christian Educators' Convention에 다녀왔습니다

3월 7일부터 8일 이틀 동안 방콕에서 SOT 교사 컨벤션이 이루어졌습니다. 태국, 라오스,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각 지역에서 온 300여명의 SOT 학교 교사들이 모여 기독교 교사로서의 모습들을 점검하고 서로의 경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는 아니지만 앞으로 파타야에서 시작될 글로비전 국제학교를 SOT 모임에 소개하고 지금까지 이규식 선교사 부부와 유철준 집사 부부가 비전을 품고 걸어온 여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직 태국지역에서는 파타야에 SOT학교가 없고 기존에 있었던 학교들이 어려움을 겪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글로비전국제학교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또 태국과 라오스에서 학교사역을 하시는 한국 선교사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감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학교 사역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아름다운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글로비전 국제유치원 한국어반이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규식, 최영미 선교사는 1993년 10월 태국 촌부리 지역에서 임마누엘 선교원을 개원했습니다. 1995년 10월부터는 방콕으로 이전하여 17년간 한인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섬겼습니다. 이규식, 최영미 선교사가 국제학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2011년 7월 파타야 방라몽으로 사역지를 이전하면서 한인 선교원 사역은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파타야 에서도 동일한 사역이 필요함을 보았고, 2019년 하반기에 글로비전 유치원 한국어반을 시작하면서 중단되었던 한인 선교원 사역을 이어 나가려고 합니다. 파타야에는 현재 5천 여명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한국 유치원이 없으며 따라서 한인 자녀들이 모국어를 배우고 또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글로비전 국제유치원에서는 최영미 선교사와 김지연 선교사가 주가 되어 한국어반을 개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천 하안교회 어린이선교 철학을 바탕으로 교재와 커리큘럼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모든 준비과정과 함께 어린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한국어 유치원 교사를 위해서 기도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지연 선교사가 글로비전선교회의 새로운 멤버가 되었습니다

2019년 3월 12일 인천 하안교회에서 파송받은 김지연 선교사가 태국 장기선교사로 헌신하였습니다. 김지연 선교사는 20여년전 태국사랑의 교회에서 단기선교사로 2년 3개월 간 열정을 다해 헌신했으며 세월이 지난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된 아들과 함께 다시 장기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습니다. 김지연 선교사는 세계 어린이 선교센터가 있는 인천 하안교회에서 훈련받으며 25년간 유치부 선교원과 초등부 선교원 교사로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 글로비전국제유치원(임마누엘 선교원) 원감으로 한국어반을 담당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개교를 앞두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김지연 선교사와 아들 준행이가 태국생활에 잘 정착하고 국제유치원 준비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간추린 소식

1. 방라몽 새빛교회 주일학교의 하루 일정을 담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 속에 나오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Ur0UO2fwX0>
2. 태국 현지인 목회자인 푸 목사가 방라몽 새빛교회의 교인인 빠띠이 할머니의 남편(담)을 위해 월체어와 현금 4,000바트를 후원해주었습니다. 중풍으로 누워있는 담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PRAYER REQUEST

1 글로벌미션센터 입구 도로가 포장될 수 있도록 읍사무소 관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소서

글로벌미션센터는 인근 도로로부터 3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센터까지 놓인 비포장도로는 우기 때만 되면 흙이 유실되어 통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주변의 다른 골목들은 포장되어 있으나, 저희 센터 앞도로는 외면 받고 있어 더욱 아쉬움이 큼니다. 그 동안 주변 태국 주민들과 함께 수차례 읍사무소로 찾아가 도로포장을 부탁했지만, 지금은 해줄 수 없다며 급하면 스스로 하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도로포장을 위해선 수천만원이 필요한데, 읍사무소의 보조 없이 이 일을 감당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읍사무소의 관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글로벌전국제학교가 시작되기 전에 도로가 잘 정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글로벌전국제유치원을 앞두고 좋은 교사들을 보내주소서

올해 하반기 글로벌전국제유치원 한국어반인 임마누엘 선교원을 개원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명의 교사가 더 필요합니다. 최영미 원장과 김지연 원감 이외에 선교원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교사를 보내주시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글로벌전국제학교 및 국제유치원의 인가가 순조롭게 이뤄지게 하소서

현재 글로벌미션센터의 사역자들은 글로벌전국제유치원 개원에 맞추어 글로벌전국제학교가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고 거쳐야 할 난관들이 다소 있지만, 이 모든 과정 위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하시길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육청 관계자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태국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글로벌전선교회의 진심을 알아주도록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4 이기쁨 선교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순산하게 하소서

이기쁨 선교사의 출산 예정일은 7월 18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모와 아기(반짝이)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